

“미국의 시민교육을 느끼다”

LA 지역 민주시민 교육기관 방문기

글 · 조철민 chochulmin@gmail.com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선진국의 민주시민 교육을 주목하고, 관련 연구 활동을 추진해 왔다. 유럽대륙과 영·미 계통 모두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는데, 실제 이들의 민주시민 교육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협력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LA지역의 민주시민 교육기관의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은 지난 10월 8일(월)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 LA지역에서 진행되었다.

1960년대 이전 까지 미국의 민주시민 교육은 애국주의적 교화의 도구로 활용되었고, 학교 교과서에 노동운동, 소수민족, 여성 등에 대한 편견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민권운동의 흐름과 베트남 전, 유럽의 6·8운동과 세계적인 변화의 조류 속에 미국의 민주시민 교육도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교과서들이 정치·경제의 현실을 다루기 시작했다. 학교 밖 민주시민 교육은 주로 변호사들의 모임이 주축이 돼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보장된 인권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인식에 충격을 받고 권리장전과 미국 헌법상 인권에 관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 '시민교육센터'(CCE, Center for Civic Education)와 '헌법상 권리재단'(CRF, 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그리고 '길거리의 법'(Street Law)과 같은 단체들이 탄생했다. 이후 다양한 주제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 기관이나 단체들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시민 교육은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 방문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을 방문했다.



저소득층, 비백인 학생이 많은 미국의 공립학교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클데도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인해 전체 수업 일 수가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내일의 시민을 길러내자’

헌법상 권리재단(CRF)은 초당파적 법인으로써, 캘리포니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내일의 시민을 길러낸다’는 기치 아래 청소년들에게 헌법과 권리장전의 가치를 심도 있게 이해시켜,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교육 활동은 ‘역사의 날’(History Day)과 ‘모의 법정’(Mock Trial) 프로그램이다. 역사의 날은 학생들이 매년 주어진 역사적인 주제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을 웅변, 포스터, 작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물론 이것은 주나 국가 전체 차원의 경진대회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토론, 정치적 의사 표현, 협동심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시민적 역량을 배우며 모의 법정은 학생들이 법정을 직접 진행하면서 미국의 법 제도를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청소년 인턴/리더십’(Youth In-turn/Leadership), ‘시니어 프로젝트’(Senior Project)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지역 많은 학교들이 헌법상 권리재단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고등학교에서는 ‘정부’라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고학년 학생들은 1년 동안 시니어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대학에 갈 자격이 주어진다. 시니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지역 사회의 문제점들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민교육센터(CCE)는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시민 교육 기관이다. 이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서들이 존재하는 미국 사회에서 지역을 초



역사와 우리 자신 보기 재단의 학생 에세이를. 끔찍한 대량학살의 역사를 배우고 역사와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현명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월해 시민이 향유해야 할 근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국가적인 표준과 평가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헌정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의 이해 △책임감 있는 사회참여 역량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및 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 시티즌’(Project Citizen)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겪는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친구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해 실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를 훈련시킨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중학교에 방문했을 때, 학생들은 ‘스케이트 보드 보관함 설치’, ‘학생의 복장 문제’, ‘맛있는 급식’과 같이 사소하지만 생활 속에서 겪는 생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들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적인 의사 소통과 문제 해결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이 밖에도 민주적 시민의 기본적 역량을 학습하는 ‘민주주의의 기초’(Foundation of Democracy), 고교생의 모의 의회 체험 프로그램인 ‘우리는 시민’(We the People),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교류협력 활동도 펼치고 있다.

역사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캘리포니아 사회과 교사 위원회(CCSS, California Council of Social Studies)는 인문, 역사, 지리, 정부 등 사회과 교사들의 모임으로 전국 조직인 전국사회과교사위원회(NCSS)의 69개 지부 중 하나다. 이들은 학교의 사회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사회과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정보 제공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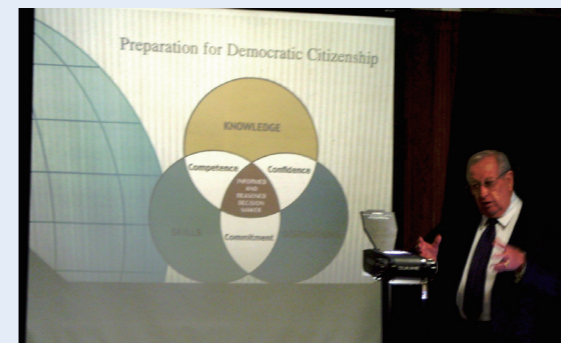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낙오학생 방지’(No Child Left Behind)를 주요 교육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영어 읽기·쓰기’와 기본적인 ‘수학’에 관한 문맹자가 많은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영어와 수학 시험을 치르고, 낙제한 학생은 학년 진급을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낙제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는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 폐교가 되기까지 한다. 이로 인해 각 학교는 ‘영어’와 ‘수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역량을 할애함에 따라 ‘사회과’와 같은 인문·교양 과

목이 도외시 되는 상황이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다. 사회과 교사 위원회는 사회과 교육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과목임을 천명하고, 부시 행정부의 교육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사와 우리 자신 보기 재단(FHAO, Facing History And Ourselves)은 매사추세츠에 본부가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곳은 LA지부였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역사적 사실, 특히 유대인 대학살(Holocaust)을 비롯한 집단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민주주의 원리와 적용에 관해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 속에 나타난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리소스 북’(Resource Book)에서 예화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토론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역사와 우리 자신 보기 프로그램’은 나찌(Nazzi) 독재가 시민들의 선택과 지지 속에 이루어 졌음을 상기하면서, 역사는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선택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진출해서 책임 의식을 갖고, 올바른 참여와 공동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연수 프로그램과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시민교육의 사명은 시민의 '지식', '기능', '성향'을 개발하여 식견있고 사려깊은 정책 결정자로 참여하게 만들므로써 민주주의를 활력있고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지금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민주시민 교육 역사,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교육 없이 절대 완성할 수 없다’는 한 학자의 말처럼, 철저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쏟아 왔던 사회적 노력들이 앞으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정신과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은 우리도 해야 할 일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첫째, 민주시민 교육은 그 성과가 비가시적이며,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헌신하는 주체들이 있을 때 뿌리 내릴 수 있다. 둘째, 민주시민 교육은 프로그램으로 말한다. 아무리 좋은 정신과 내용도 학습자가 쉽게 그리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어야 효과가 생긴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민주주의와 관련된 훌륭한 담론들이 많다. 문제는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시민 교육에 종사하는 주체들은 시민들이 쉽게 민주주의의 정신과 역량에 젖어 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구 개발에 힘써야 한다. 셋째, 특히 ‘역사와 우리자신 보기’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은 과거의 역사가 흥미로운 민주시민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회의 사명 자체가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감동과 경험 그리고 정신과 지식들을 전승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교육’이다.

글 조철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팀 전문위원